

제969호 (1994.8.2 등록번호 다-3802호)

2013년 10월 6일(주일)

온누리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던진故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

The Onnuri Weekly

http://news.onnuri.or.kr

• 발행인: 이재훈 • 편집국장: 장선철 • 부장: 김남원 • 기자: 정지은, 오은지, 조유진, 조은실 / 140-240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71-106 / 신문사 3215-3199 / 570-7611 서빙고 793-9686 양재 573-9686

오늘, 온누리교회 창립 28주년주일

이 땅에 세워진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교회와 세상에 '희망'과 '사랑'의 씨앗 뿌려

28년 전 오늘, 이 땅에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며 온누리교회가 세워졌다. 오늘이 온누리교회 창립 28주년(창립 1985년 10월 6일)이다. 선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답게 일본에서 18회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 개최, 선교사들의 영적 젖줄이 되어 주는 CGNTV 개국 등 28년 동안 온누리교회가 받은 은혜를 헤아릴 수 없다. 온누리교회는 국내외 교회와 세상에 희망과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로 자리 잡았다. 입당예배를 드리기도 전인 1987년 7월 12일 탄불도교회 기공을 돕는 것으로 국내외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를 섬기는 데 앞장서왔다. 세상에도 선한 영향력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1994년 결성된 '예수향교회'가 효창공원에서 한 식사봉사를 시작으로 1999년 8월에는 온누리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온누리복지재단은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섬기는 7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온누리교회가 올해로 창립 28주년을 맞았다.

또 온누리긴급재난구호팀(이후 램프온)은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2010년 아이티 지진, 2011년

일본, 터키 지진 등 국내외 재난이 발생하면 즉시 자원봉사자로 참석해 피해 복구는 물론 재난

당한 사람들을 위로 했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하나님은 '절대 제자'를 찾으십니다!

2013 온누리 부흥축제, 9일~11일 양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초대교회가 믿고 따르던 것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님의 제자로 나아올 것을 믿습니다."

-프랜시스 찬 목사

온누리 부흥축제 '절대제자'가 오는 9월(수)부터 11일(금)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부흥축제는 '다시 말씀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사명으로'라는 주제로 3일 동안 진행된

다. 주강사인 이재훈 목사와 데이비드 플랫 목사, 프랜시스 찬 목사의 말씀을 통해 실제 삶 속에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흥축제는 말씀 중심으로 진행된다. 집회의 시작은 이재훈 목사의 '절대제자'라는 주제의 말씀선포로 집회의 막을 올린다. 이어 데이비드 플랫 목사가 >복음의 능력>주권>제자의 삶>나를 따르라 등의 말씀으로 주제강의와 저녁부흥집회를 인도한다. 둘째 날은 프랜시스 찬 목사가 >권리 포기>순종>새 계명을 주노라 등의 메시지 선포와 두 목사의 실제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야기를 듣는 '제자 이야기' 시간을 가진다. 셋째 날은 >사도로 부르심>>고난 속의 승리>너희와 함께 하리라 등의 주제로 번갈아 말씀을 전하고, 특별강사로

초청된 김준근 장로는 '순종'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집회는 샌드애니메이션, 장로합창단, 박기영, 교역자, 가브리엘 오보에 연주, 연합성가대의 특순 등으로 더욱 풍성하게 꾸며진다.

3일 남은 부흥축제에 참가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등록은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과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할 수 있다. 오늘까지 3만원, 당일 등록은 4만원이다. 특별히 이번 집회는 하루 등록(2만원)이 가능하다.

문의 02-3215-3355-6

<관련기사 10면>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공사안내

서빙고 정문 주차장 차선도색 작업으로 10월 8일 오후 11시 30분부터 9일 오후 11시 30분까지 주차장 이용이 통제됩니다.

군마 러브소나타 참가자 모집

일본에서 19번째로 올려 퍼지는 '러브소나타 군마'를 한 달가량 앞두고 러브소나타 본부에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러브소나타 군마는 오는 11월 13-14일 군마 베이시아 문화를

CEO포럼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재훈 목사가 주강사로, 심수봉(가수), 김영미(소프라노), 배재철(테너), 신상우(피아니스트), 송솔나무(플룻연주자), 온누리장로합창단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문의: 02-749-1149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땅 끝선교사 됩시다!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가 오늘(10월 6일)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실시된다. 정기후원 약정행사에는 예배에서 나눠주는 약정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참여하면 된다. 국내 10개 캠퍼스 로비에는 CGNTV 후원안내 데스크가 마련된다. 이벤트도 실시된다. 오늘 방송, 신문, 배너 등에서 '땅 끝선교사', '정기후원', 'CGNTV' 중 문구 하나를 카메라로 찍어서 후원안내 데스크에 가져오면 선착순으로 '참존 콘트럴크림'을 증정한다.

CGNTV는 매년 1회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열고 CGNTV와 함께 할 '땅 끝선교사'를 찾고 있다. 문의: 3275-9212 <관련기사 12-13면>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다윗의 절망과 용기

절망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내 생각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삼상 25:1~13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쓴 쉘렌 키에르케고르라는 크리스천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는 복합적인 두 가지 절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 하나님만 믿는 모습 그대로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이 아니기를 원할 때 절망에 빠진다고 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이기 싫어할 때 절망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이 아니기를 원하면 질투와 원망,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을 연약하기 때문에 빠지는 절망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하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기를 고집할 때 반항의 절망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면서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의 두 왕

사울의 모습에서 절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을 질투하고 원망했습니다. 동시에 스스로를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기에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반항했습니다. 다윗의 모습에서도 절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도 절망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 진정한 신앙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절망 속에서 죽어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절망이 오히려 믿음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27장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역사를 보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어처구니없는 모습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 블레셋 왕 아기스의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이것도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현재 왕이나 미래의 왕이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한 사람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점을 치고,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의 왕에게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백성들은 두 왕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역사의 절망은 언제나 지도자들 때문에 생깁니다. 블레셋의 공격이라는 외부의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절망입니다. 백성들의 절망은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장면입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에 빠진 다윗

“다윗과 그 군사들은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남부와 시글락을 습격한 뒤였습니다. 그들은 시글락을 공격하고 불태웠으며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와들 거기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무도 죽이지는 않았지만 모두 데리고 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이미 모두 불타 버렸고 그 아내와 아들딸들은 포로로 잡혀 간 뒤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힘이 다 빠져 더 이상 울지도 못할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1~4절).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 다. 군사 600명과 가족들이 살고 있었으니 실제로는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시글락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시글락을 습격해 가족들을 잡아갔고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삼일 만에 시글락에 돌아온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가족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문제는 그들 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상황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윗과 함께 한 600명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책임을 추궁하

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는 위급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성공직후에 찾아오는 위기

“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6절 상).

600명의 군사들이 가족들이 잡혀간 것을 보고 다윗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군사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위협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가 되어 지켜주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도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는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를 다윗에게 쏟아 낸 것입니다. 엄청난 절망 앞에 다윗은 무척 괴로웠습니다.

이 위기가 발생한 이유는 다윗의 공동체가 시글락이라는 곳에 살게 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은 24장과 26장에서 두 번이나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며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놀라운 영적 성숙입니다. 나팔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에서도 그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불안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언제 사울의 공격을 받아 죽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성공한 직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승리해서 도취되어 있을 때 가장 강력한 공격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아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립했을 때 기도를 통해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 엘리아가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아는 성공한 직후에 이세벨이 두려워 도망을 갔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수백 명과 대결했을 때에는 담대했던 엘리아가 이세벨이 두려워 로마나무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예리고를 정복했습니다. 예리고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예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성이 나옵니다. 아이성은 말 그대로 작은 성입니다. 예리고성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지만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예리고 성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전리품을 몰래 취하는 범죄로 인해 그들은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영적인 승리 이후에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의심,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나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를 찾기를 그만둘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그의 손에서 해방될 것이다’”(삼상 27:1).

다윗의 연약한 절망입니다. 그는 머지않아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해주셨던 손길을 생각하면 이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그는 블레셋에서 미진적이고 도망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가장 안전한 땅이 블레셋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사울이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을 쫓아 블레셋에 온다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절망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의심과 두려움을 따라 선택한 길은 반드시 더 큰 절망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 두려움이 생겼을 때 그는 블레셋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승리만을 바라보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딜레마에 빠진 다윗을 구해주십시오

다윗이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집단 망명을 합니다. 모든 것은 다윗의 뜻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받고 도망 다닌다는 소문이 블레셋에도 퍼졌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확신을 이용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진심은 블레셋 사람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을 숨기고 블레셋과 한편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600명의 군사들과 공동체를 이주를 시킨 것입니다.

블레셋 왕에게 받은 마을이 시글락입니다. 그들은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살았는데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안전했습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것처럼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추적해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마치 블레셋과 한편인 것처럼 위장하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위기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때 다윗에게 같이 가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같이 싸우러 가지 않으면 그동안의 모습이 모두 연기였다는 것이 들통 나게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서 싸우러 가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을 잃게 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모두 딜레마입니다.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 주십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집을 쫓겨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기 위해 시글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반발을 합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신하들의 마음에 불안함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전쟁에 나가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쟁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다윗과 군사들이 시글락을 떠나 있던 삼일 동안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축대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다윗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시글락에 살게 된 것도 다윗의 선택이고, 전쟁에 나가면서 군사를 배치해 놓지 않은 것도 다윗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군사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

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지금 다윗만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블레셋 왕 아기스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울도 위기입니다. 사울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 갑니다. 이것은 완전한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헤어지지 못하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6절 하).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절망은 오히려 그를 용기 있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절망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의지했던 모습을 끌어내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이 왜 찾아옵니까. 스스로를 의지하려는 인생을 끌어내기 위해서

의 생각과 계획을 의지했던 다윗의 생각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이 절망은 그가 왕이 되기 전 마지막으로 찾아온 시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밖에서 추구하는 평화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서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 옳았고, 자신이 식솔들을 지켰고, 공동체를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기 힘겨운 광야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힘들었지만 안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건너가 시글락에서 산 1년4개월 동안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밖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절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말렉 사람들이 마을을 공격했지만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다윗이 삼일이 아니라 일주일 후에 돌아왔더라면 쫓아갈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한 애굽 종이 광야에서 발견됩니다. 그 종은 아말렉 진영의 종이었는데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서 광야에 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그 종을 살려줍니다. 그 종이 다윗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말렉 군이 있는 위치를 가르쳐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할지 모를 때 해야 될 일은 더욱 선행에 힘쓰는 것입니다. 다윗과 군사들은 그 종 덕분에 아말렉 군사들이 있는 곳을 습격해서 모든 가족들을 되찾아 옵니다. 아말렉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도 가져옵니다. 그들은 더욱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전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출발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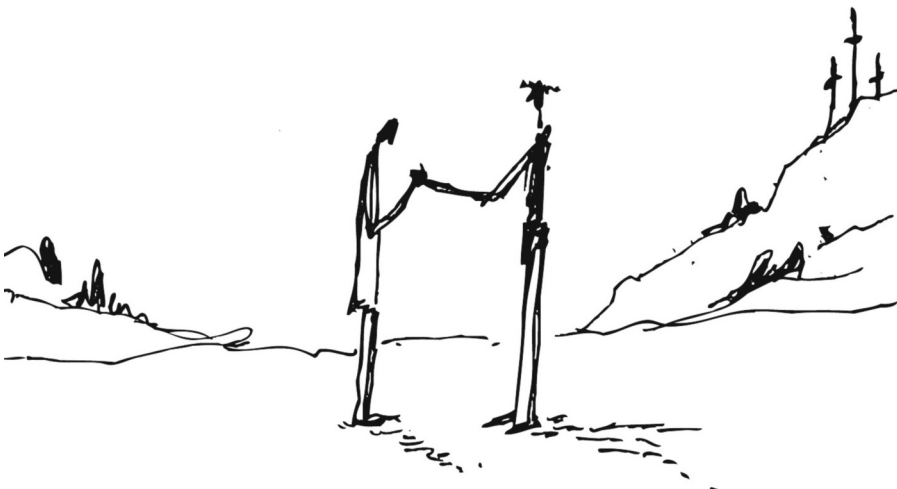
절망은 축복의 통로

삼일동안 걸어왔는데 또 다시 전쟁을 하러 가니 다윗의 군사들이 매우 피곤해 했습니다. 급기야 200명의 군사들이 낙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낙오한 군사들을 정죄하지 않고 쉬도록 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400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다윗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군사들을 온유와 인내로 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낙오한 200명의 군사들을 정죄하지 않고 쉬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버림받은 애굽의 종도 돌보았습니다. 클라이맥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을 전쟁에 나가지 않은 200명의 군사들에게도 동등하게 나눠준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인격입니까.

무엇이 다윗을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아름다운 천국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절망적 상황에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완전히 죽음에 이르는 자가 되었지만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성도들께 십니까. 그 절망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확실하십시오.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완전히 끌어내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러스트 yje



하나님이 절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면 스스로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머무는 동안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화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 누리는 안전과 평화는 거짓입니다.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마을이 불에 탔고 가족들이 모두 잡혀간 것입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절망 속에서 다윗의 정신이 반짝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지난 1년 4개월 동안의 불신앙을 끌어냈습니다. 다윗에게서 있어 절망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

망적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과 일행들을 다시 건져 주셨습니다. 이제 다윗의 영혼이 깨어 용기를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비야달에게 하나님의 뜻을 에봇을 통해 묻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물어 볼 필요도 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가족들이 잡혀갔는데 달려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쫓아가지 않는 것이라면 포기할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뒤쫓아가라 해서 아말렉을 뒤쫓아 갑니다.

역전을 시켜주시는 하나님

찬양사역팀 신입단원 모집합니다!

2013년 하반기 각 오디션 일정

매주일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드리시는 찬양사역팀에서 신입단원을 모집중이다. 서빙고는 1부 주찬양, 2부 주사랑, 3부 챔버사역팀, 4부 온누리워십, 양재는 주의빛, 뮤지컬찬양, 주기쁨 등 3개의 찬양사역팀, 도곡

은 주경배찬양사역팀에서 섬길 단원을 기다리고 있다. 자격은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 및 세례 교인으로 찬양에 열정이 있는 성도면 누구나 가능하다. (▼오디션 일정 아래표 참조)

매주일 오후2시 한동홀에서 진행되는 서빙고 일본어예배에서도 찬양사역팀을 모집한다. 대상은 세례교인이면서 기초 일본어가능자며, 연습시간은 토요일 오후 4시부터다.
· 문의: 신동천 집사 010-3724-7666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대청 멘토수련회에서 교역자들과 멘토들이 함께 꾸민 시트콤의 한 장면.

“청년들의 영적 부모가 되겠습니다!”

대청 멘토 수련회, 60여 멘토 ‘멘토의 역할’ 나눠

대학청년부 10개 공동체에는 공동체 부모이자, 영적 지도자가 되는 120여 명의 ‘멘토’가 있다. 지난 9월 28일(토) 남한산성 목상의집에서 열린 멘토 수련회에는 60여 명의 멘토가 참석했다. 멘토들과 교역자들이 꾸민 시트콤에서는 교회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편한 사례’를 선보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고인선 멘토(여호수아공동체)가 ‘거룩한 멘토’로서의 부르심과 태도, 멘토의 역할 등을 나누며 강조했다. ‘패널토’에서는 각 공동체의 멘토, 교역자, 대청MC, 간사 등이 참여해 ‘멘토의 역할’ 및 어려운 점, 바라

는 점 등에 대해 나눴다. ‘멘토의 역할’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청년들과 함께 힘든 일, 기쁜 일을 공감하면서 ‘영적 부모’가 되어주는 것과 기도와 말씀으로 청년들과 소통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멘토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멘토 자체가 영적인 원천, 자부심의 원천이 되어 사랑과 기도로 하나님께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MC(대청리더십)들이 생각하는 좋은 멘토, 어려운 멘토에 대한 솔직한 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서빙고

	주일1부 주찬양	주일2부 주사랑	주일4부 온누리워십	주일3부 챔버사역팀
일시	10월 13일(주일) 오전9시	10월 17일(목), 24일(목) 저녁 7시20분	10월 27일(주일) 오후3시30분	주일 오전10시(수시로)
장소	본관 지하1층 성가대연습실	본관 지하1층 성가대연습실	본관 지하1층 성가대연습실	본관 지하1층 B102호
오디션곡	-	자유곡 1곡	자매/주께 가오니 형제/주 여호와와 광대하시도다	전공자 오디션 없음, 비전공자 전화문의
연습	주일 오전 5시20분~6시30분 주일 오전 9~10시 월요일 저녁 7~9시	주일 오전 7시 목요일 저녁 7시20분~9시30분	주일 오전 11시30분 수요일 저녁8시	주일 오전 10시
문의	정상구 총무 010-4731-6556	엄찬용 총무 010-3192-9222	윤성희 총무 010-3435-0086	장혜라 팀장 010-3191-0663

양재, 도곡

	주경배찬양사역팀	주의빛찬양사역팀	뮤지컬찬양사역팀	주기쁨찬양사역팀
일시	10월 13일(주일)	10월 13일(주일)	11월 10일(주일)	10월 6일(주일)
장소	도곡 교육관 2층 화평홀	두란노홀(숙소동B1)	비전홀B(지하식당안쪽)	두란노홀(숙소동B1)
오디션곡	찬송가, 복음성가, CCM 등 자유곡 1곡(악보1부 지참)	찬송가, 복음성가, CCM 등 자유곡 1곡(악보1부, 찬송가)	찬송가, 복음성가, CCM 등 자유곡 1곡	찬송가, 복음성가, CCM 등 자유곡 1곡(악보1부, 찬송가)
연습	주일-예배전 오전 7~8시, 예배후 오전 10시30분~12시 주중-목 오후 7시30분~9시	주일-예배전 오전 7~9시, 예배후 오전 10시30분~11시30분 주중-목 오후 7시~9시30분	주일-3부예배후 오후2~6시 주중-월 오후7~10시	주일-예배전 오후12시~1시30분, 예배후 오후 3시30분~5시
문의	최영훈 총무 010-7724-8334	서요셉 부총무 010-2815-0472	서덕형 총무 010-3728-7991	진동연 총무 010-4641-3978

〈열린다성경아카데미 가을학기 세미나 안내〉

과목: 오전반(성막,성전,절기),
오후반(신약심화과정),
저녁반(구약심화과정)
일시: 10월 7일-12월 9일
(매주 월, 총10회)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EM 전시관
문의: 010-4902-1022,
www.openbible.kr

기쁨이 넘치는 ‘노인의 날’ 맞이해요!

청파노인복지센터에서는 지난 2일(수) 제 17회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센터 내·외부에는 풍선장식과 축하 포스터를 부착했고, 경로식당에서는 온누리교회 임직자들과 서울 시도시기반시설본부의 봉사자와 섬김으로 떡과 식사를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대접했다. 센터에 방문한 바00 어르신

은 “우리 노인들을 위해 고생하는 봉사자들과 직원들이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 기쁨을 나누어 주는 복지센터가 있어 최고다”라고 전했다. 이옥자 센터장은 “매일매일 노인의 날처럼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다. 어르신들 섬길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 조유진 기자

“올바른 신앙교육 방법 함께 배워요!”

예수님의꿈아이, 부모교육스쿨 개강

“엄마아빠가 달라지면 우리 아이도 달라집니다.”
예꿈(예수님의꿈아이)에서 부모교육스쿨을 개강했다. 이번 부모교육스쿨은 자녀 양육을 위해 신앙적인 바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지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또한 올해는 “특별히 부모가 신앙 교사로서 아이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난 9월 28일(토) 첫 시간에는 이재현 목사(지구촌교회 글로벌 홈스쿨 아카데미 담당)가 올바른 신앙교육을 위한 부모들의 자세에 대해 설명하며 자녀들에게 마음을 돌아길 것을 강조했다.

/ 조유진 기자

“탁구로 세계선교 갑시다!”

제2회 교회연합 선교탁구축제, 23개 교회 연합

지난 10월 3일(목) 할렐루야교회에서 제2회 교회연합 선교탁구축제가 열렸다. Acts29탁구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23개 교회가 연합한 가운데 200여 명의 선수가 참석해 주님

안에서 하나 됨을 경험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예선, 예배, 본선, 결선 등으로 진행되었다. 결선에는 갈보리교회와 사랑의교회가 올랐으며, 갈보리교회가 우승했다.



Acts29 탁구연합회에서 주관한 '제2회 교회연합 선교탁구축제'가 할렐루야교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23개 교회가 연합해 열심히 탁구경기에 임하는 모습.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는 개회사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연합하기를 원하신다. 이곳에서 이뤄지는 교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큰 힘이 되어 열방을 향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신현규 목사(할렐루야교회 복지공동체)는 ‘영혼과 육체의 연합’, ‘교회간의 연합’, ‘선교지의 연합’ 등 세 가지 연합에 대해 강조했다.

/ 오은지 기자

은혜의 결실 맺는 ‘아버지학교’

오는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5주 동안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아버지학교가 열린다. 아버지의 영향력, 사명, 영성, 가정 등의 주제강의와 조별 나눔시간 등으로 진행된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바이올라 대학 입학설명회

2014년 봄 학기

미국 기독교 명문 바이올라대학교에서 2014년 봄 학기 입학생 모집을 위한 입학설명회를 오는 10월 22일(화) 오후 7시 양재 온누리교회 믿음홀에서 개최한다. 2014년 바이올라 대학교 봄 학기

입학생 모집과정은 토플(TOEFL) 성적 없이 본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또한 이번 입학설명회에서는 2014년 가을학기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고 새로운 맞춤형 영어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도 진행된다. 문의: 02-570-7396

/ 김남원 부장

성령님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51회 성령수련회

제 51회 성령수련회가 지난 9월 28-29일 양일간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디딤동산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수련회에는 참가자와 스태프를 포함해 70여 명이 참석했다. 성령수련회에서 이해영 목사는 ▷약속을 기다리다 ▷오

순절을 준비, 맞이하다 ▷영적전쟁 ▷사랑과 평안 ▷기쁨과 용기 ▷빛모습에서 등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정영숙 집사(마포공동체)는 “매번 올 때마다 천국에 온 듯 기쁨이 넘친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있다가 돌아간다”고 전했다.

/ 조유진 기자

아름다운 가을에 만난 보물...바로 예수님!

인터뷰

광명공동체, 맞춤전도집회 진행

“여러분에게 주어진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진 그 보물은 바로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광명공동체가 하반기 공동체 맞춤전도집회의 첫 테이블을 끊었다.

높고 푸른 하늘, 기분 좋은 가을바람이 살랑이던 지난 3일 초청된 80여 명의 전도대상자가 맞춤전도집회 ‘시월의 보물상자’에 참석했다. 이번 전도집회는 매주 월, 화에 진행한 기도모임, 두 번의 연합순례, 특별헌금 등 광명공동체 식구 모두가 하나되어 콘셉트부터 작은 소품까지 준비해 그 의미가 더 컸다. 서울특별시립 근로 청소년 복지관에서 열린 집회는 ▷접수 및 포토존 촬영 ▷점심 식사 ▷영상1-코미디언 이흥렬 ▷FL워십팀 공연 ▷영상2-장광 집사 ▷나무엔 특수 ▷영상3-이재훈 담임목사 ▷메시지-10월의 선물 ▷영상4-초



청자 ▷광명공동체 워십 ▷축도 및 환송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성석 목사(광명공동체)는 “맞춤전도집회라는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비록 작은 공동체이지만 소외된 식구들까지 함께하며 공동체성을 다

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보냈다”면서 “초청된 모든 분들이 시월의 보물상자를 통해 진정한 인생의 보물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전도대상자들이 예수님 품고 돌아가길”

광명공동체는 다락방이 3개인 작은 공동체입니다. 맞춤전도집회라는 큰 행사를 준비하다보니 처음에는 버거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퍼즐 조각이 맞춰져 진정한 하나로 완성된 느낌이 듭니다. 우리들이 정성껏 준비한 만큼 참석하신 전도대상자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초청된 모든 분들을 인도하셔서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집회의 제목처럼 시월의 보물상자를 열어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꼭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길 기도합니다.

/ 이영식 집사(광명공동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감동의 시간!”

지적장애인 온사랑합창단 첫 정기연주회

“삶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을 보며 다시 한 번 일어서야겠다는 뜨거운 힘을 얻었습니다.”

지난 9월 28일 용산아트홀 소극장 가람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합성과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연주회를 관람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관객들도 여럿 있었다. 이 날 온사랑합창단은 그들의 첫 정기연주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Nothing But...’을 주제로 한 연주회는 온사랑합창단 전체단원의 공연을 비롯해 형제와 자매로 나뉜 중창팀의 공연, 김보라 자매와 연제민 형제의 독창, 온사랑부모회의 구원 열차 특순, 사랑나눔중창단(광림교회) 초대공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연주회의 모든 순서가 끝나자 관객들은 연신 앙코르를 외쳤고 온사랑합창단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으로 화답했다.

합창단원인 김병수 형제의 어머니는 “아들이 장애로 인해 자존감이 너무 낮았는데 이번 무대를 통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칭찬을 받으며 기뻐했다. 온 가족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이었다”며 감사의 고백을 전했다. 합창단의 선생님과 부모들은 “무엇



보다 아이들이 노래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것에 참 감사하다”면서 “황화자 교수님을 비롯해 여러 성악가 선생님들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레슨을 해주셔서 단원들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었다”면서 고마움을 전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소리 높여 찬양할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2011년 창단된 온사랑합창단은 청소년부터 청년들까지 지적장애를 가진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34명의 단원과 12명의 선생님이 함께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 조유진 기자

정기연주회

온사랑합창단의 첫 정기연주회가 진행된 9월 28일에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리허설 현장을 방문해 단원들과 선생님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성장한 용산구청장도 함께 자리해 “장애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도 전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스럽다”고 말했다.



온사랑부모회

온사랑합창단원의 부모들로 구성된 ‘온사랑부모회’는 자녀들의 첫 정기연주회에서 그동안 준비해 온 화려한 특순(구원열차)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흥을 돋구었다.



■ 온사랑 합창단 연혁 ■

2011년 6월: 제 1기 합창팀 모집
2011년 8월: 수안보교회 찬양발표
2011년 11월: 제 19회 전국장애인합창대회 본선 - 나눔상 수상
2012년 5월: 제 5회 세브란스 선교미술전 찬양발표
2012년 6월: 제 13회 장애인 교회학교 캠프 강습회 초청 공연
2012년 11월: 제 6회 세브란스 선교미술전 찬양발표
2012년 12월: 제 20회 전국장애인합창대회 본선 - 나눔상 수상
2013년 9월: 제 1회 정기연주회
2013년 10월: MBC 바보나눔 스페셜 콘서트 대합창 출연 예정

대전

자녀 위한 눈물의 기도 드렸다

온종일기도회 진행, 9일은 자녀 위한 기도회

입시와 취업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세대를 살아 가야 하는 차세대 자녀를 위한 어머니들의 기도에 불이 붙었다.

지난 10월 1일(화) 대전 차세대 주관으로 온종일 부모기도회가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동안 계속된 기도회에는 60여 명의 성도가 참여했고, 이날 기도회는 3교시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 번째 강사는 윤길중 목사(대전 온누리교회). 윤 목사는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친 모세의 기도(출 17:8-16)를 설명하며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기도할 것을 권했다. 이어 서너 명의 성도들이 짝을 지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양 옆에 앉은 성도가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가 되어 중보하는 기도회가 진행됐다.

두 번째 강사로 은임성 목사(대전 유성공동체)가 나섰다.

임 목사는 “자녀를 키우며 첫째는 욕심을, 둘째는 의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 진정한 기도의 목적을 깨닫고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 될 것”을 권면



이날 60여 명의 어머니들이 차세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

했다.

점심식사를 마친 후 시작된 3교시는 김성욱 전도사(대전 차세대)가 말씀을 전했다. 김 전도사는 시편 1편 말씀을 본문으로 메시지를 전하며 “자녀들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할 것”을 전했다.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박경란 성도(새가족, 마리아순)는 입시를 위한 기도보다 아들의 신앙회복을 위한

기도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의 강요에 의해 고등학교 3년 동안 아들이 신앙생활을 못해 안타까웠다면 “아들의 믿음이 회복되길 바라고 아들이 어려울 때 받았던 비전이 회복되길 소망하며 눈물로 기도했다”고 고백했다.

한편 오는 9일(수)부터는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본당에서 진행된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파워웨이브 청소년들의 예배 열정의 장, 토요일패션.

청소년들의 뜨거운 예배의 장 토요일패션

PW 청소년집회, 매달 진행

지난 9월 28일(토) 대전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위한 토요일패션(Passion)집회가 열렸다. 토요일패션집회는 차세대 파워웨이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집회로 대전에서는 올해 ‘Sailing(항해)’을 주제로 한 달에 한 번 대전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한다.

찬양을 시작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집회는 참석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이끌었다. 특선으로는 위신팀의 〈New Song〉 공연이 열렸고, 이어 김성욱 전도사(대전 차세대 담당)의 설교가 있었다. 김 전도사는 ‘Life Navigation(시 107:30)’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의 방향을 신뢰하듯 청소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말씀 후에는 윤길중 목사(대전 온누리교회)의 인도로 기도회가 진행됐다. 윤길중 목사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을 드리고, 친구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자”고 도전하며 참석자들을 기도의 장으로 인도했다.

여름방학 이후 첫 번째로 드려진 대전 토요일패션집회에는 대전외국어고등학교 등 대전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100여 명의 학생이 모여 자신의 삶과 비전에 대한 고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뜨겁게 예배했다.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참석한 정소은 학생(18, 대전 온누리교회)은 “청소년을 위한 비전을 하나님께 찾으려는 메시지가 도전됐다. 친구들과 함께 울며 서로 중보해주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예배의 자리가 학교생활에서도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대전, 성찬 포도즙 제조 시작

권사 및 임직 대상자
포도즙 140병 제조

서빙고와 양재, 수원 등 캠퍼스에 이어 대전 온누리교회에서도 성찬 포도즙 제조 사역을 시작한다.

지난 27일(금) 대전에서 처음으로 성찬 포도즙 제조가 진행됐다. 이날 온누리교회 포도즙 권사이자 〈나는 행복한 포도즙 권사〉의 저자 류석인 권사가 특별 강사로 초청됐다. 류석인 권사는 온누리교회에서 처음으로 포도즙을 담게 된 일화와 간증을 전하며 포도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격려했다.

이어 류석인 권사와 함께 포도즙을 직접 담그는 시간이 열렸다. 대전 공동체 담당 목회자들의 기도와 축복으로 시작된 성찬 포도즙 제조에는 대



포도즙을 담그는 류석인 권사(맨 오른쪽)와 대전 온누리 성도들.

전 권사들과 권사 임직을 받는 대상자들이 참여했고, 이날 일 년 동안의 성찬포도즙으로 쓰일 포도즙 140병이 제조됐다.

포도즙 제조에 참여한 이충순 집사(권사 임직 대상자)는 “대전에서 포도

즙을 직접 제조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면서 “포도즙 제조 행사가 기반이 잘 세워져 좋은 전통으로 이뤄질 바란다”고 말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수원 알림

〈수원 순장학교〉

기간: 10/6-11/17(7주) / 시간: 주일 오후 4-6시

장소: 2층 사랑홀 / 신청자격: 등록교인, 동반자과정 수료자, 예비순장

신청 및 문의: 팀장 광기호 집사(010-6314-2800) / 총무 이호근 집사(010-6291-2057)

목회지원실 권윤석 간사(031-855-6500)

〈수원 동부23기 아버지학교〉

기간: 11/2-11/30(토) 오후 4-9시 / 장소: 수원 온누리교회

모집인원: 선착순 100명 (종교무관, 비교인, 타교회 동시접수 중)

회비: 12만원(교재, 식사, 옷 포함) / 접수: 교회 1층 안내 데스크

문의: 박명규(010-8887-4532), 이호근(010-6291-2057)

〈남누리 순연합 산상기도회〉

일시: 10/18(금) 오후 9-11시 / 장소: 광림수도원

주소: 경기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525-4번지 / 기타: 자녀반별도 운영

문의: 신동기 팀장 110-2882-9231, 문관기 총무 110-7221-8017

■ 기도해주세요

1. 서아영 서아란 어머니(위암 치료 중)
2. 김종환(간암 치료 중)
3. 김미애 유아부 선생님(위암 치료 중)
4. 구인숙 성도(뇌하수체 종양)
5. 박장우 집사(수술후 회복)
6. 이윤경 집사(수술후 회복 중)
7. 심상승 집사(허리 디스크 및 척추측만증)
8. 고광주 성도(폐암 온전한 회복)
9. 김인순 집사(난소암, 항암치료 중)

대전 알림

특별새벽기도 RECOVERY

일시: 10/7-12/2 오전 5시 20분

(단 토요일은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장소: 대전 온누리교회 6층 본당

윤복희 권사 초청 콘서트 '여러분'

일시: 10/20 저녁 7시

장소: 대전 온누리교회 6층 본당

문의: 목회지원실(042-825-3642)

이웃사랑 실천...나눌수록 커지는 '사랑'

아기 천사들의 '엄마' 로, 어른신들의 '친구' 로



양재 공흘사역팀원들이 생명나무 아기천사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온누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흘한 마음을 품고 곳곳에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 있다. 양재 공흘사역팀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생명 이 자라는 나무'에 찾아가 부모에게 버려진 아기들과 위탁아동들의 엄마가 되어주고, 강남B공동체는 다락방별로 돌아가며 용인온누리요양센터를 방문해 어른신들의 친구가 된다. 이 외에도 온누리 곳곳에서 노숙자, 장애인, 쪽방촌 등 다양한 공흘사역이 펼쳐지고 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을 함께 찾았다.

'사랑'으로 생명이 자라는 곳
양재 공흘팀, '생명나무'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 가운데 온누리금

출사역팀의 섬김과 후원이 너무 소중합니다. 동역자님들의 사랑 실천으로 어린 생명들이 자라납니다."

양재 공흘사역팀과 함께 찾아간 생명을 주는 나무(이하 생명나무)에서 김무일 목사가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생명나무는 올해부터 양재 공흘팀에서 새롭게 섬기고 있는 시설이다. 이곳은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 중 정부 시설에 들어갈 수 없는 사각지대 아이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다. 2010년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며 시작된 이 시설이 지금은 위탁아동과 어린부모들까지도 돌보는 사역으로 확장되어 감정고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안학교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양재 공흘팀을 보내주셨다. 공흘팀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섬겨간다. 지난 28일(목) 두 손에 잔뜩 분유를 사들고 공흘팀과 함께 찾은 생명나무에는 신생아에서부터 3살 미만의 아기 천사들이 방여가져기를 뛰놀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팀원들은 흠어져 사역을 시작했다. 앞치마를 입고 젖병을 세척하고 팔을 걷어 부치고 바닥을 청소하고, 신생아 우유를 먹이고, 재우고, 아이들과 함께 놀며 책을 읽어주며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다. 사랑스런 아이들의 모습에 봉사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다. 아이와 함께하는 생명나무 사역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다. 사랑의 말과 눈빛, 스킨십이 아이들과 팀원들을 하나로 묶고 있었다. 봉사자들 모두 주는 사랑보다 이곳에서 받고 가는 사랑이 더 많다고 입 모아 고백했다.

이곳은 24시간 아이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돕는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 이 사역 뿐 아니라 양재 공흘팀에서 하고 있는 쪽방촌, 노숙자, 청소년, 노인, 지적장애우 등을 위한 사역에서도 언제나 후원과 돕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임훈규 양재 공흘사역팀장은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은 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공흘사역에 동참하는 손길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임훈규 팀장 010-6211-0838 / 생명나무
후원문의 070-7100-2245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인/터/뷰 ■



"생명의 소중함 깨달았습니다"

저의 어린시절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가정을 훌륭하게 만들어갈 자신도 없고 삶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로 아이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4년 전 남편과 사별 후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 사역을 신청했습니다.

첫날 와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꿔주셨습니다. 생명이 너무 소중하고 예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생명나무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좀 더 알아가는 은혜도 누리고 있습니다.

/ 김미정 성도(강남A공동체)

■ 인/터/뷰 ■



"어르신 기뻐하니 보람 느껴요"

찬양 불러 드릴 때 눈물 흘리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도 행복했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까운 가족에게부터 실천하려고 합니다. 특히 어른신들을 보면서 저희 시부모님께도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 정유희 권사(강남B공동체)

강남B, '온누리요양센터'

"맑고 깨끗한 분들입니다. 말벗이 되어주시고 찬양 불러드리고 성경 읽어주시며 하신 봉사 사이 어르신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강남B공동체는 매달 다락방별로 돌아가며 공흘사역을 나간다. 작년에는 군부대 사역을 올리는 용인온누리요양센터를 섬기고 있다. 축축이 비가 내린 28일(주일) 오전, 강남B공동체 온유다락방 30명의 지체들과 함께 온누리요양센터를 찾았다.

구관과 신관 2층, 3층, 4층에 팀을 나뉘어 어른신들의 식사 도우미로 사역을 시작했다. 이곳에는 치매·중풍·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80대 이상의 어른신들이 대부분이어서 지체들은 요양보호사의 안내에 따라 일어서지 못하는 어른신의 침대로 찾아가서 식사를 돕거나 앉아계시는 어른신들 곁에 다가가 식사와 양치질 하는 것을 도왔다.

식사를 마치고 지체들은 한자리에 모여 찬양 연습과 기도로 다음에 이어질 찬양 부르기 사역을 준비했다. 센터의 각 층계를 돌아다니며 어른신들을 모아놓고 찬양을 불러드렸다. 기억은 흐릿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찬양을 잊지 않고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



지난 9월 28일(목) 강남B공동체 온유다락방 30명의 지체들이 용인온누리요양센터를 찾아 어른신들을 섬겼다.

었다. 찬양을 불러드리는 지체들도 찬양을 따라하는 어른신들도 모두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했다. 센터에 들어온 지 7년이 됐다는 이명숙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외워서 고맙다'고 말하며 지체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전했다.

찬양을 마치고 다시 팀으로 나뉘어 각 층으로

흠어져 성경을 읽어드리고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말벗이 되어 드렸다.

강남B공동체 공흘사역 박주원 팀장은 "어르신들이 함께 찬양 부르시며 눈물 흘리는 모습이 감동적이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한뜻으로 섬기는 것이 더욱 은혜로웠다"고 말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순수한 어른신들과 행복 잔치

창립 28주년 특집 / 단숨에 읽는 온누리교회2

선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1985년 10월 6일 한남동 기독교 선교원에서 드린 창립예배에는 80여 명이 참석했다. 창립 예배도 그 전 예배와 마찬가지로 오전 10시 ‘창세기 일대일 공부’부터 시작했다. 창세기 일대일 공부 후 예배와 성찬식이 이어졌고 식사와 교제를 했다. 그 후 가건물로 옮겨 오후 3시부터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날 조성록, 황재규 등 2명의 협동장로와 김정옥 외 11명의 남자 집사, 허명희 외 17명의 여자 집사가 임명되었다. 일주일 뒤인 10월 13일에는 첫 제직회가 열렸다. 10월 27일부터는 가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오후 7시 30분 주일 저녁예배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발표되었다.

창립예배를 드린 후부터 새신자들이 매주 두 배씩 늘어났다. 이들을 위해 12월부터는 12주 과정의 새신자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 교육은 ▷새신자반 ▷구원반 ▷성령반 등으로 나누어 각 4주간 진행되었다. 새신자반에서는 사영리, 성령충만한 삶의 비결, 훈련, 온누리교회의 비전 등을 나눴고, 구원반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성령반에서는 성결한 삶을 강조했다. 새신자 교육을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했던 까닭은 초신자가 다른 교회에서 수평 이동해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교회의 사역과 비전 등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교회를 선택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정의한 하용조 목사는 온누리 성도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지속적으로 ‘떠날 것’을 강조했다. 예배나 집회에서 성도들에게 “7년 된 교인은 떠나라”고 임버릇처럼 말했다. 따라서 온누리 성도들은 초창기부터 자신의 삶을 선교와 관련해 생각하는 데 익숙했다. 이것은, 예수님과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교회론을 펼치고 있는 하 목사의 목회 철학에서 잘 알 수 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교회는 첫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공동체, 둘째,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공동체, 셋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 넷째, 천국의 열쇠를 가진 공동체이다.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교회는 첫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 둘째, 양육하는 공동체, 셋째, 고난에 참여하는 공동체, 넷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다.

이 두 가지 관점에 따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일 것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온누리 성도의 삶 자체가 선교이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온누리교회는 창립예배를 드린 지 2개월 만인 1985년 12월 김의정 선교사를 인도네시아로 파송했다. 교회는 아직 가건물이었고, 11월 30일에 열린 당회에서는 1986년 700명 성도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을 때였다. 1986년 1월 5일에는 변재창 선교사를 일본으로 파송했고, 그 해 9월 21일에는 정민영(파푸아뉴기니) 선교사와 김창환(영국) 선교사를 추가로 파송했다.

온누리 성도들은 국내선교에도 힘을 모았다.



2천/1만 비전을 따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 파송이 잇따랐다. 1996년 3월 박종길 선교사 파송식 장면.



온누리교회는 입당예배도 드리기 전인 1987년 7월 12일, 탄불도교회 기공을 도왔다. 이렇듯 Acts29 비전은 창립 초기 때부터 싹트고 있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있는 머릿돌.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꿈을 품은 주님의 자상명령이 담긴 마태복음 28장 19~20절 말씀을 기록했다.

지금은 매립지가 된 시화공단에 예전에는 작은 섬들이 있었다. 그곳에 있는 형도교회를 창립하기 전(85년 7월)부터 섬겼다. 성경공부 모임 4기가 진행되던 중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협력 사역은 1988년 이후 더 확장되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던 성도가 실제로 전도해 보기로 작정하고 그곳으로 간 것이 시작이었다. 그 지역을 돌면서 전도했는데 전도된 사람들이 모일 교회가 없자 ‘새누리교회’ ‘탄불도교회’ ‘어도교회’를 탄생시켰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7년 된 교인은 떠나라.” 이 ‘7년’과 ‘떠남’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온누리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받는데 7년이 걸리고 이 훈련을 다 마친 성도는 남아있지 말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는 뜻이다. 자연히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섬기게 되었다.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

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 낳는 것보다 잘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목사는 코치, 성도는 선수.’ 이 말들은 온누리교회의 양육 체계를 잘 설명해 준다. 양육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후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위해 탄생한 것이 큐티(말씀 묵상)와 일대일 제자양육이다. 12가정 모임 때부터 현재까지 온누리교회를 이끌어 오고 있는 이 두 양육 체계는, ‘떠남’이라는 온누리교회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창립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 예배 때 큐티 간증을 하는 시간이 많았다. 그러나 창립예배 후, 성도가 늘어나면서부터 체계적인 큐티 훈련이 필요하게 되었고, 1988년 4주간의 큐티 훈련이 처음 시작되었다. 창립예배 이후, 큐티 간증은 주일 저녁예배나 수요일 저녁예배 시간에 계속되었고, 이것은 큐티나눔방의 모델이 되어 전국적으로 퍼졌다.

개인이 하나님과 만나 변화되는 통로가 큐티라면, 일대일은 개인과 개인이 만나 서로 변

화되는 통로 역할을 한다. 하목사는 교회 초기부터 일대일을 강조했다. 이는 일대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낳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즉, 양육자가 성경과 정보를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은혜와 감동, 영적 유산을 나누는 부모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 일대일은 온누리교회를 영적으로 하나로 묶는 큰 힘이 되었다. 1988년에는 일대일 지도자반이 시작됐다.

1988년 9월 28일부터 시작한 주일 성경공부에 큐티와 일대일이 포함된 아래, 이것은 새신자 양육을 위한 필수 과정이 되었다. 큐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1천만 명의 성도가 큐티를 하자는 ‘천만큐티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두란노를 중심으로, 큐티 전문 사역자를 키우고 지역 교회에서 큐티 세미나를 여는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큐티와 일대일은 평신도가 주인공이다. 온누리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해 전국, 세계 각처로 흩어져 헌신하고 있다. 이 중심에는 큐티와 일대일이라는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

Love Sonata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노래”

2007년, 평양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를 맞아 온누리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 40일 특별새벽부흥집회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하용조 목사가 강단에 올라 말씀을 선포했고, 온누리교회에는 부흥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가득 넘쳤다. 이 때 온누리교회는 일본을 주목했다. 2008년 10월, 일본 CGNTV 개국 때 일본 교회들의 부흥에 대한 갈망이 온누리교회에 전해졌기 때문이다.

일본인을 위한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는 당시 일본에 한류열풍을 일으킨 ‘겨울연가’(일본에서는 ‘겨울소나타’로 방송)에 편승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리라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당시 온누리교회는 열린예배, 맞춤전도집회, 온누리축제 등을 진행하면서 문화전도집회를 진행할 수 있는 노하우가 쌓여 있었고, 일본 CGNTV는 일본 교회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러브소나타는 조금씩 구체화되었다. 일본 요도바시교회의 미네노 다츠히로 목사가 한국을 방문해 하용조 목사와 비전을 나누면서 러브소나타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일본 현지에서는 ‘이런 대형집회가 가능한가? 연합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으로 다가가자 서서히 모든 장애물이 하나씩 걷어지기 시작했다.

러브소나타 집회를 준비하면서 복음과, 성령과, 장로교, 개신교, 성공회 등 일본의 교회들이 연합하기 시작했다.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부흥에 대한 갈망으로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집회를 진행하면서 가깝고도 먼 나라였던 한국과 일본이 서로 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러브소나타의 열매

No	지역	협력교회	일본참가자	한국참가자	총참가자	결신자
1	오키나와	76	2,075	422	2,497	173
2	후쿠오카	78	2,100	447	2,547	192
3	오사카	208	3,700	622	4,322	158
4	도쿄	380	15,684	5,007	20,691	339
5	삿포로	71	2,580	522	3,102	153
6	센다이	74	1,830	430	2,260	139
7	히로시마	86	1,862	265	2,127	112
8	요코하마	209	5,260	727	5,987	264
9	아오모리	62	1,440	316	1,756	34
10	나가사키	49	1,690	446	2,136	101
11	고베	141	2,097	329	2,426	130
12	나고야	130	2,400	492	2,892	139
13	아사히카	55	1,310	400	1,710	71
14	니가타	56	1,683	282	1,965	70
15	나가노	69	1,660	362	2,022	66
16	다카마쓰	67	1,891	292	2,183	113
17	가고시마	52	1,862	367	2,229	130
18	오키나와	101	2,047	366	2,413	122
합 계		1,964	53,171	12,094	65,265	2,506



2007년 오키나와를 시작으로 일본의 18개 도시에서 막 오른 러브소나타. 하용조 목사는 일본을 향한 애절한 사랑을 러브소나타로 표현했다. 온누리교회 2기 사역에서도 러브소나타는 이어지고 있다.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 사진은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일본 CGNTV 개국행사 하용조목사 메시지

“일본 전도는 일본인이 해야 합니다. 일본을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일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민족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요 대안입니다.

하나님, 일본에 부흥을 주옵소서. 말씀의 부흥을 주옵소서. 삶의 부흥을, 교회의 부흥을 주옵소서. 일본이 비상하기 원합니다. 오키나와에서 삿포로까지 성령의 바람이 불기 원합니다.”

군마에서 온 편지

“소망이 현실이 되었어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군마에서 2008년부터 개척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일본을 위해 수차례 러브소나타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척 감사드립니다. 군마에서도 러브소나타를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군마 러브소나타를 계기로 군마지역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군마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군마 러브소나타가 이제 한 달가량 남았습니다. 현지에서는 가스펠나이트집회에 참가하는 연합찬양팀이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또 한 군마의 각 지역별로 매주 월요일에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실행위원회를 비롯한 러브소나타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온누리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러브소나타 군마 기도위원 / 뉴와인스킨 그리스도교회 카나이 쿠미에 목사 드림

Love Sonata 기도제목

- 10월 7일(월): 이재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 10월 8일(화): 한국에서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 10월 9일(수): 일본 현지에서 많은 협력교회들이 동참하도록.
- 10월 10일(목): 러브소나타에 출연진들이 성령충만하도록.
- 10월 11일(금): 교회부흥세미나를 통해 일본교회가 부흥하도록.
- 10월 12일(토): 가스펠나이트를 통해 일본 땅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 10월 13일(주일): 일본 땅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2013 온누리 부흥 축제
www.onnuri.org



2013 부흥축제 이렇게 진행됩니다

알려드립니다

- 행사장 내, 외부에서 질서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집회장소는 사랑을 본당입니다.
- 각종 분실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점심, 저녁 시간에는 리허설 관계로 본당출입이 통제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개인물품을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시 받은 명찰은 항상 착용하여 주세요. 미 착용 시 출입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 장시간 착석으로 인한 피로 및 이상 증상을 피하기 위해 휴식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주세요.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본관 로비 안내데스크를 이용하여 주세요.
- 저녁 집회는 열린 집회입니다.

■ 등록

- 등록 시에 명찰, 교재를 드립니다.

■ 주차

- 부흥축제기간 중에는 교회 주차가 불가하며, 08일(화)부터 주차 제한합니다.
- 3인 이상 탑승 시 교회 주차 가능합니다. (킵 및 대중교통을 이

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회관 주차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셔틀 운행안내

시 간	운행장소	탑승장소
오전(8:00~10:30)	양재역 → 교회	양재역 교육문화회관
오후(12:30~13:00)	교회 → 양재역	
(15:30~16:00)	교육문화회관 → 교회	
저녁(18:00~19:30)	교회 → 교육문화회관	
(22:00~22:30)		

■ 택아

- 택아방은 사이닝홀(36개월 미만, 부모동반), 양재 자모실(36개월 이상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 ~ 오후 10시입니다.
-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아동은 외부기관을 이용하여 주세요.

■ 의료데스크

- 사랑홀 2층에서 간단한 구급약 등을 지급합니다.
- 지병 혹은 치료 중에 있는 분은 개별적으로 약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홍보부스

- 행사기간 내에 로비에 설치 운영됩니다.
- [두란노/CGNTV]에서 도서 및 영상/음반 등을 홍보합니다.
- 두란노서점에서 도서 판매 부스 운영

■ 식사

- 행사 중 점심만 제공합니다.
- 등록 시 받은 교재 안에 3일간의 식권이 있습니다.
- 식사 후, 다양한 휴식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따라솔제공)

시 간	장 소	방 법
아침 7:00~8:00	식당(B1층)	식권구입(2500원)
점심 12:30~14:00	식당(B1층), 야외천막(1층), 드림홀	식사제공
저녁 17:30~19:00	식당(B1층)	식권구입(2500원)

강사 소개

■ 주강사 이재훈목사

-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 햇빛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온누리교회 2대 담임목사, 온누리교회에서 차세대 사역을 시작으로 맞춤형도 사역을 개발하였고, 멀티사이트 교회로서의 전략개발을 이끌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창의적인 교회론을 추구하며 하용조 목사를 통해 주신 Acts29비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 주강사 데이비드플랫목사 (David Platt)

- 브룩힐즈 교회 담임목사
- 「래디컬」의 저자

미국에 출간한 지 2년 만에 백만권이 팔리며 영적 돌풍을 일으킨 「래디컬」의 저자. 미국 앨라배마 주 버밍엄에 소재한 브룩힐즈 교회(The church at Brook Hills)의 담임목사이다.

조지아 대학을 졸업하고 뉴올리언스 침례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브룩힐즈 교회에 부임하기 전, 침례신학교에서 학생처장 겸 조교수로 강해설교와 조직신학을 강의했고 뉴올리언스 옛지위터 침례교회에서 부교역자로도 사역했다.

현재는 브룩힐즈 교회를 담임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를 다니며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지으셔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하셨다'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치고 멘토가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삼기' 사역에 온 열정을 쏟고 있다.

■ 프랜시스찬목사 (Fransis Chan)

- 전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Multiply」의 저자

코너스톤 교회를 (Cornerstone Community Church, Simi Valley, CA) 개척 담임 하였다. 1994년 30명으로 개척한 코너스톤 교회는 2000년도에는 2천여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캘리포니아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었다. 그는 이터니티 신학교를 (Eternity Bible

College) 창시했고, 크레이지 러브(Crazy Love), '지옥은 없다'와 같은 많은 유명한 신앙서적을 쓴 미국교회의 차세대 리더이다. 2010년 코너스톤 교회를 사임한 후, 제자로서의 삶을 실천하며 살기 위해 2011년 샌프란시스코 지역으로 떠났다. 월드임팩트와 아동기아재단 이사 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입의 90퍼센트를 기부하고 있다.

■ 특별강사 김춘근장로

- JAMA 대표

1980년부터 알래스카에서 교수로 활동. 1996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국제 경영학 교수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책임자로 활동. 2004년 착수암 선고 후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암 완치 후 2007년부터 글로벌리더십개발원(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Institute, GLDI)을 시작하고, 2009년 한인 1.5세와 2세들이 미국의 주류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 받기를 기대하며 크리스천 리더를 훈련하는 일에 기쁨으로 여생을 바치고 있다.

정기후원 약정의 날-이재훈 목사님과 함께



이재훈 목사

“CGNTV는 온누리교회 선교의 결정체입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28주년 기념일이자 CGNTV 정기후원 약정의 날이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CGN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됩시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정기후원 행사에 앞서 가진 대담을 통해 “CGN은 곧 온누리교회 선교의 결정체”라며 “CGN사역은 포기할 수 없는 선교적 과제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각자의 후원액수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선교에 동참한다는 공동체적 고백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목사로부터 CGN사역의 가치와 미래 방향성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교회 창립기념일에 CGNTV 정기후원행사를 갖는데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CGNTV의 가장 중요한 운영원칙은 복음의 메시지로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독교방송의 주 수입원은 설교방송을 내 보내는 대신 거기에 따른 재정 부담을 설교자나 교회에게 부담시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세 가지 이유로 이런 운영방식을 거부합니다. 첫째, 말씀 전달의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증거는 재정적 거래의 근간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메시지의 질적 컨트롤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적이지 않는 메시지는 결코 방송하지 않습니다. 셋째, 믿음선교(Faith Mission)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재정으로 선교를 하는 게 중요하기에 후원자들과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자발적인 후원을 통해 CGNTV에 부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CGN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마음, 꿈은 무엇 일까요. CGN에 대한 한국 선교사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운데요.

“하용조 목사님이 CGNTV를 설립하신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고립돼있는 선교사들은 영적 재충전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예배에 대한 목마름과 영의 양식에 대한 갈급

함이 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CGN에 대한 선교사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제가 야마존을 방문했을 때 만난 선교사는 CGNTV를 통해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있다고 감사했습니다.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서 외롭게 사역하는 선교사도 사하라 주변 국가들에서 위성방송이 가장 발달했기 때문에 필수 사역이라고 격려해주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선 선교사들이 후원금을 모아 방송국에 보내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선교사 자녀들은 CGNTV를 통해 한국어를 학습하기도, 영적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선교지에 갔을 때 선교사 자녀들이 계속 저를 따라다니는 적이 있었어요. TV에서 본 사람이 왔다고 좋아하더라고요(웃음).”

-날이 갈수록 CGNTV 선교방식이 유효하다는 게 증명되고 있는데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채널이 필요하죠. 직접선교, 문화선교, 구제선교, 문서선교 등. 위성방송선교는 앞서 열거한 방법들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지역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채널입니다. 비자를 받기가 용이치 않은 이슬람권 지역과 선교사가 거주하기엔 너무나 열악한 지역에게까지 위성방송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성방송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땅끝의 한 영혼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겠다고 고백한다면 이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게 마땅하고 진정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교회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리가 아니라고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CGN의 효과는 날이 갈수록 선교지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일본 CGNTV 7주년 기념 감사예배에 참석했었는데요. 일본 CGN은 현지화 된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입니다. 5년 만에 전국 47개도현, 1600개 교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CGN을 통해 일본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 부흥의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CGNTV의 외연 확장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CGN은 순수성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후원기반을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온누리교회가 튼튼한 기초석이 되고 건강한 한국교회와 CGN의 비전과 사역철학을 공유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보시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요. 보다 강화되기를 바라는 게 있으신다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그 다음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입니다. 피드백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제 자신의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입니다. ‘하늘빛향기’ ‘반갑습니다’ 등도 주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반면 현지어 방송들은 더 많이 보강되면 좋겠습니다. CGNTV는 다른 국내 기독교방송과는 달리 해외선교에 방점을 두고 있기에 현지어 방송프로를 활성화하는 게 매우

적절하고 적실합니다. 재정 부담이 더 많이 요구되겠지만 땅끝 선교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으신다면.

“우선 중보 기도자가 돼주십시오. CGNTV 전 직원이 흔들림 없이 땅끝 선교의 비전에 온전히 충실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현재 1만8000여명의 소액후원자에 의해 적잖은 재정이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CGNTV에 추가적으로 후원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단지 재정 부담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부담을 함께 걸머지면 좋겠습니다.”

CGNTV의 또 다른 도전

이슬람권을 위해 준비되는 ‘러브 스토리’



단기간 내 일본 전국 47개도현, 1600개 교회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일본 선교역사에 있어 커다란 족적을 남긴 CGNTV의 새로운 거룩한 도전이 준비되고 있다. ‘한인 선교사와 디아스포라를 위한 방송’으로 ‘자민족 복음화를 넘어 지구촌 크리스천들과의 연대를 통한 세계선교의 완성’이라는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선교사들의 접근이 용이치 않은 곳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고려하고 있다.

단일국가로는 최대 무슬림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법적으로 전도가 금지되었던 이곳을 향한 CGN의 비전이 구체화되고 있다. 현지에 기독교 방송이 있지만 시설과 인력 등 상황이 열악하고 양질의 콘텐츠가 절대 부족해 현지 크리스천들의 수요조차 맞춰주지 못한다는 사전 리서치 결과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는 이슬람권을 향한 새로운 미디어모델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중인 적잖은 한국 선교사들이 CGNTV 인도네시아 진출을 내심 반기고 있

다. 김학진(자카르타한인연합교회) 목사는 “CGNTV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복음에 소외된 영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데 매우 적절한 선교매체”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한 이용규 선교사도 “이슬람권 방송사역은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며 “이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이야말로 가운데 위성방송 때문이라는 간증을 쉽게 들을 수 있다는 게 그 반증”이라고 했다. 또 다른 선교사는 “CGN 위성안테나를 설치할 때 마침 선교관에서 인도네시아 신학교 졸업생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20명의 인도네시아 신학생들이 CGN을 통해 한국 교회의 예배 모습을 보고 많은 도전을 받았다”며 “인도네시아어로 방송되는 CGNTV가 생기면 기존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더욱 공고해지고 복음 전도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CGNTV가 인도네시아 복음화는 물론 현지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매체가 될 거라는 예측도

있다.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교회가 오순절 계통으로 이적과 은사 운동 등을 통해 성장해왔다. 최근 현지 사역자들 중 교회가 성장할수록 은사가 아닌 순전한 복음만이 성도들의 진정한 영적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미디어선교의 중요성과 가능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앤서 라반게제기이 코린 예배당(시도르조교회) 목사는 “CGNTV가 인도네시아에 직접 진출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저의 사역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현지 교회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며 CGN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른 교회 지도자는 “인도네시아가 향후 다른 이슬람권 복음화를 위해서도 주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슬람으로부터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미래교회 지도자로 양성하려고 동분서주하는 선교사들이나 양질의 말씀에 목말라하는 현지 기독교인 모두가 CGN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페트로스 아궁(가스펠오브킹덤교회) 목사는 “더 많은 기독교 방송국들이 생기면 기독교인이

나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커다란 유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GNTV는 기존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제작센터를 기반으로 해 이슬람의 영향력이 지대한 중동과 북서부 아프리카에 대한 사역도 조심스럽게 확장해나가려 한다.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혁명 이후 아랍의 이슬람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격동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현지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길 원하고 강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혼란을 틈타 이슬람 근본주의세력이 이슬람교에 의한 통치를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 선교사가 활동하기가 더욱 용이치 않진다. 다양한 언어 사용(아랍어, 불어) 문제로 선교사들이 쉽게 지원하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탓인지 인구 250만 명당 1명의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CGNTV는 이런저런 한계를 뛰어넘어 무슬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보다 많은 위성안테나를 쉽게 볼 수 있다. 현지인들은 수백 개의 위성채널에 노출돼있다. 방송은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무슬림들의 안방까지 깊숙이 파고 들어가고 있다.

CGN은 이런 상황을 심분 활용해 위성안테나 설치가 간편한 이들 지역에서 자체 안테나 보급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기존의 아부다비 제작센터를 통해 걸프만 지역 교회의 연합을 보다 공고히 하는 한편 이집트를 중동과 아프리카 복음화의 전진기지로 삼아 아랍어 방송사역을 확대해나가려 한다.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북서부 아프리카 국가와 기독교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간 영적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이슬람세력의 남진을 막고 유럽의 이슬람화를 제어한다는 세계 선교계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CGNTV 이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CGN은 후원자들이 보다 늘어나면 현지화 된 프로그램을 더 많이 제작하려고 한다. 한인 선교사뿐 아니라 현지 사역자들에게 공히 탁월한 콘텐츠가 절대 필요하다. 이집트, 요르단 등지에는 오랫동안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그리스도인 그루터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양질의 목회자를 양성하고 평신도를 교육할 만한 시설과 여건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CGNTV는 남미 지역 목회자를 위해 위성신학교를 운영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슬람권 현지 사역자와 평신도들을 위한 건강한 교회와 신학 정립에도 기여하려고 한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역중인 인도인 로렌스 목사는 “CGNTV는 삶의 올바른 가치를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선교 돌파구가 되고 있다”며 “갈거리 찢겨진 마음에 CGN이 참된 희망과 미래가 돼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다른 국가와 사회에도 확장돼 CGNTV가 없어서는 안 되는 지성과 영성, 감성의 원천이 돼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함태경 경영기획본부장

2013 온누리 부흥 축제
www.onnuri.org

절대 제자

The absolute disciple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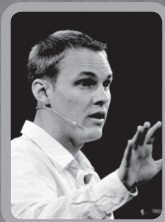
MAIN SPEAKERS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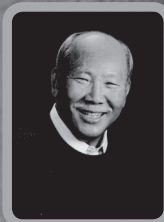


프랜시스 찬
전 코너스톤교회 담임
Multiply 저자



데이비드 플랫
브룩힐즈교회 담임
레디컬 저자

GUEST SPEAKER



김춘근 장로
JAMA 대표

2013.10.9 WED - 10.11 FRI
온누리교회 양재 사랑홀

회비 사전 등록 3만원 (10/6까지) / 당일등록 4만원
입금 하나은행 573-910011-04505 (예금주:온누리부흥축제)
문의 Tel 02-3215-3355~6

목회지원실 또는 로비접수처에 신청서 제출 ▶ 확인증 수령 ▶ 행사당일(9일) 지참
※ 신청자와 입금자가 다를 경우 필히 확인 전화 바랍니다.

Onnuri
Community Church